

영화 '미나리', 보스턴비평가협회 2관왕



영화 '미나리' (감독 리 아이작)가 보스턴비평가협회에서 선정한 여우조연상(윤여정)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으로 '미나리'의 오스카 수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오스카 4관왕에 올랐던 '기생충'의 경우도 아카데미 시상식 전 보스턴비평가협회에서 감독상,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배우 윤여정이 받은 여우조연상은 내년 아카데미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뱅크'의 어맨다 사이프리를 제치고 수상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작년 수상 배우인 '작은 아씨들', '결혼 이야기'의 로라 던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윤여정은 앞서 할리우드 저널리스트들이 설립한 협회인 '선셋 필름 크리틱 서클'이 주관하는 선셋 서클 어워즈에서도 여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또 미국 연예매체 인디와이어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여자배우 베스트13'에도 이름을 올렸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덴버 국제 영화제에서 관객상과 최우수 연기상(스티븐 연),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상과 관객상, 미들버그 영화제 관객상과 배우조합상, 하트랜드 영화제 관객상과 지미 스투어트 공로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보스턴비평가협회 홈페이지 캡처

머라이어 캐리, 영·미 팝차트 석권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대표 캐럴인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이하 크리스마스)로 영·미 팝 차트를 잇달아 석권했다.



빌보드는 14일 예고 기사를 통해 이 곡이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크리스마스'는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1994년 발매된 지 26년 만으로, 캐리가 빌보드와 오피셜 차트를 동시에 석권하는 것은 이 곡이 처음이다.

'크리스마스'는 캐리의 첫 번째 캐럴 앨범인 '메리 크리스마스'의 리드 싱글이다. 차임벨과 신시사이저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사운드와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건 당신'이라는 낭만적인 가사가 어우러져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다. 연말이면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역주행해 캐리의 '성탄 연금' 같은 노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

지난해에는 25년 만에 '핫 100' 정상에 등극해 3주간 자리를 유지했다. 크리스마스 관련 곡이 이 차트 1위에 오른 건 60년 만에 처음이었다.

사진=머라이어 캐리(머라이어 캐리 페이스북)

이달의 소녀, 미 연말쇼 '징글볼' 사전 공연 출연



그룹 여자친구가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 뮤지엄'의 인터뷰 코너 미니 마스터클래스(Mini Masterclass)에 출연했다. '미니 마스터클래스'는 음악 산업 종사자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미 뮤지엄의 인터뷰 시리즈다.

여자친구는 15일 그래미 뮤지엄 공식 유튜브 채널로 공개된 인터뷰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최근 음악적 영감을 어디서 얻었는지,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을 향한 조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음악)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자질

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멤버 소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고, 항상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여자친구는 지난달 정규 3집 '화발푸르키스의 밤'(回:Walpurgis Night)을 발표했다. 여자친구는 이 앨범에 수록된 디스코 장르의 타이틀곡 '마고'를 통해 다채로운 콘셉트 소화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진=그래미 뮤지엄 '미니 마스터클래스' 출연한 여자친구(GRAMMY Museum Experience)

숫자퍼즐 정답								
9	7	1	6	8	2	4	5	3
8	2	3	5	7	4	1	9	6
6	4	5	1	3	9	8	2	7
1	6	4	8	2	7	5	3	9
2	3	8	9	4	5	6	7	1
5	9	7	3	6	1	2	8	4
3	8	2	7	1	6	9	4	5
4	1	9	2	5	3	7	6	8
7	5	6	4	9	8	3	1	2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